

2017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제주문화기획학교 <JJ SCHOOL>을 소개합니다.

JJ SCHOOL은

제주도의 오름과 바다 속, 원도심, 마을, 시장과 길,

때론 아시아까지 상상과 발길이 닿는 현장을 누비면서

관찰하고, 읽고, 쓰고, 기획자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여정에서 기획하는 아티스트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뒷받침하는

동료기획자이자 친구로 여러분 곁에 서 줄 것입니다.

문화예술기획을 하고 싶은 청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커리큘럼은?

■ 문화기획자의 습관 만들기 (총 20강)

기획자는 늘 글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획서 쓰는 방법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JJ SCHOOL에서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읽고 쓰는 리듬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 기획하는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6개월

아티스트 담임이 제주도를 무대로 펼쳐놓은 세 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①] 아시아, 섬, 원시성 / 담임 : 믹스라이스 양철모&조지은

근대가 생성되기 전의 섬의 원시성으로부터 출발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의 축으로 제주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해변에서의 원시성 채집, 수렵 문화로 시작하는 상상과 행위는 해삼과 새우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아시아 섬들의 해양 문화에 이르기까지 서사성과 상상력이 만나 현재로 흘러들어가는 유명을 온몸으로 충돌, 반동 시킬 겁니다. 그 몸에서 나온 미온으로 다시 지금 여기 제주에 서서 똑바로 직립하는 사람,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②] 문화기획, 여섯 개의 머릿돌 / 담임 : 아뜰리에오 하림&양양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화와 기획이라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의 단어는 문화라는 자연스러움과 기획이라는 의도함의 결합에서 이미 한 가득 질문거리를 안고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로 이어지는 질문의 순환은 자연스럽게 사색가를 기획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게 바로 여기 모인 우리입니다.

<문화기획 여섯 개의 머릿돌>은 각각의 강좌를 통해 계속되는 질문의 연속된 고리에서 훌가분하게 벗어날 출구를 함께 찾아 볼 것입니다. 여섯 개의 큰 질문과 그에 따른 작은 질문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는 어느새 우리의 코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③] 독립출판 프로젝트 / 담임 : 독립프로듀서 류성호

제주도를 무대로 상상할 수 있는 국내외의 대안적인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취재하고 독립출판물로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독립적인 문화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지역문화운동, 청년문화, 도시재생 등 문화기획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독립출판 책자에 수록될 내용을 정리하고 결정하는데 도움 되는 다양한 주제별 수업과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도 병행합니다.

■ 전문 문화기획 특강 시리즈 (총 20강)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현장을 이해하고 심화된 자신만의 관심 주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①] 놀이와 교육 (5회)

[시리즈②] 제주도의 문화기획 (10회)

[시리즈③] 떠오르는 문화기획 (5회)

■ 스스로 프로젝트 지원

마지막 1개월 동안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기획해 봅니다.
기획, 실행, 제작, 발표 등에 필요한 제반환경과 수행비용을 지원하고
아티스트 담임이 멘토로 곁에서 응원합니다.

■ 졸업 후 기회 모색

JJ SCHOOL의 활동 내용을 책자로 묶어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배포합니다.
또한, 졸업생들이 제주 지역 문화기획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모색합니다.

[아티스트 담임]

아티스트 담임 믹스라이스 (양철모 & 조지은)



'이주'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여러 흔적과 과정, 경로, 결과, 기억들에 대해 탐구해 온 팀이다. 현재는 식물의 이동과 진화, 식민의 흔적과 더불어 이주 주변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맥락에 대해 사진과 영상, 만화를 통해 작업하고 있다.

● 주요참여 전시

12 Sharjah Biennale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Sharjah, UAE)
<nnncl & mixrice>
(아뜰리에에르메스,서울, 2013)
<제 7회 아시아 퍼시픽 트리에날레>
(Gomma 현대미술관, 브리즈번, 2012)

● 아티스트 북

『nnncl&mixrice』(에르메스코리아014),
『아주평평한공터』(포럼, 2011)
『다카로가는메세지』(새만화책 2000)
출간 마석동네페스티벌(2012-2014) 기획

[아티스트 담임]

아플리에오 (하림 & 양양)



◎ 아플리에오는

예술을 매개로 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예술가들의 능동적인 협업을 통해 공익적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다.

◎ 하림은

음악가로 살아가며 아플리에오라는 예술 커뮤니티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중. 도하프로젝트, 기타포아프리카, 시크릿액션 등 세상속에서 예술가의 역할과 수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담은 프로젝트들을 실행하였으며 집시의 테이블, 해지는 아프리카와같은 장르 융합형 공연들을 기획 제작하였다.



◎ 양양은

싱어송라이터. 1집 <시시콜콜한 이야기>
2집 <사랑의 노래> EP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과 동명의 타이틀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 에세이집을
발표했다. 문학 팟캐스트 <문장의
소리>에서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아티스트 담임]

독립프로듀서 류성호



들어다보면 뭐든 나온다.

무언가 계속 찾고 만들어 가는 인생.

궁금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길을 걷다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앞서 걸어간 사람들을 눈앞에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어스새 함께 길을 걷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나름 재미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전공을 하다가 군대 제대 후 뒤늦게 미술을 시작했고, 그림보다 기획이 좋아 15년 넘게 문화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다. 활동하며 만난 여러 장르의 친구들과 시각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연계 프로젝트, 거리축제, 파티, 전시, 독립출판,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청년문화 활성화사업, 지역재생 프로젝트, 서브컬처 해외 리서치 등 정말 이것저것 돈 주고도 못사는 경험을 많이 했다.

[문화기획자의 습관 만들기 강사진]

장혜령, 고영직, 김남수



장혜령

‘나의 독자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창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글을 쓰고 작업을 해왔다. 2012년부터 네시이십분 팟캐스트 라디오를 제작, 여러분야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를 기반으로 낭독회나 워크숍을 기획했으면 2014년부터 소설리스트(sosulist.com)에서 소설 리뷰를, 2016년부터 EBS 지식채널에서 대본을 쓰고 있다.



고영직

1992년부터 글을 써왔으나 천성이 자못 게으른 탓에, 글을 많이 쓰지는 못했다. 사연 많았던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엔 소설 쓰기에 관심이 많았으나, '드라이'한 분석적 문장에 한계를 절감하고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됐다.

평소 나의 정서는 도시적 감수성보다는 '컨트리 보이(country boy)' 정서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김수영 시인이 언명한 바 있는 "첨단의 절정"에 대한 내면적 반발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비록 잡문에 불과하지만, 화려한 수사의 멋을 부리는 것보다는, 긴 여운을 남기는 에세이를 자주 올리겠다는 말로 짧은 소감을 대신한다.



김남수

대한민국의 안무비평, 연구자, 기획자이다. 2002년 무용월간지 《몸》 주최의 제9회 무용예술상 무용평론 부문 「홍승엽, 성찰적 모더니스트의 제안」를 발표하면서 비평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퍼포밍아트지 《판》 창간과 함께 편집위원 활동,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원으로 3년여 활동, 2011년 (재)국립극단 선임연구원(1년) 활동,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 아카이브팀장 및 드라마투르그 활동, 2014년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슴뿔도서관 프로젝트 활동 등 무용, 연극, 미술, 학술, 다원예술에 걸친 다방면 활동. 《백남준의 귀환》의 공저자이며, 《백남준: 말에서 크리스토폰까지》를 기획 및 편집했다.

참가 방법은?

■ 신청

- 기 간 : 2017. 4. 18 ~ 5. 1
- 대 상 : 문화예술기획자가 되려는 39세 이하 청년
- 방 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jjschool@jfac.kr)
 - ※ 양식 다운로드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 선발

- 인 원 : 40명 이내
- 인터뷰 심사 : 2017. 5. 10(수)
- 발 표 : 2017. 5. 12(금)

■ 문의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문화예술교육팀
T. 064-800-9173
E. jjschool@jfac.kr

학교 운영 일정은?

■ 일정

- 학교 설명회 : 2017. 4. 20(목)
- OT : 2017. 5. 16(화) ~ 17(수) 1박 2일
- 수업 기간 : 2017. 5. 23(화) ~ 11. 1(수) / 매주 화·수 09:00~18:00

■ 수강료 및 교육수료증

- 수강료 15만원 (85% 이상 수료시 전액 환급)
- 전체 수업 시수 80% 이상 출석시 교육수료증 발급